/ '입학사정관제' 합격 하려면 … /

대학은 '팔방미인'을 원한다

재능에 꼭 맞는 포트폴리오 만들고

면접관에 자신 장점 최대한 알려야

서울과 광주 소재 주요 대학들이 올해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을 활용한 신입생 선발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려대, 연세대, 카이스트, 한국외대 등은 전체 모집정원의 10~20%를, 전남대는 올해 최초로 123명을, 조선대는 657명을 입학사정관제로 뽑을 예정이다. 서울대도 지난해 118명보다 22명 늘어난 140명을 이 제도로 선발한다.

성적보다는 수험생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고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는 도시 학생보다는 농·산·어촌이 많은 광주·전남지역 수험생에게 유리한 제도다.

입시 전문 업체인 유웨이중앙교육은 16일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을 분석하고, 수험생들에게 '팔방미인형'으로 변신할 것을 당부하는 자료를 내놓았다.

▲높은 경쟁률 고려해야=2009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입학사정관 전형 경쟁률은 무척 높았다. 고려대 교육기회균등 전형 42.7대 1, 연세대 인재육성프로그램 전형 39.9대 1 등이었다.

올해 입학사정관 전형을 하는 대학은 더 늘어났지만 인기가 높은 만큼 경쟁률 상승도 예상된다.

▲자신만의 포트폴리오 완성해야=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하는 수험생은 나름대로 다양한 끼와 재능을 갖춰야 한다.

2009년도 입시에서 이 전형 합격생들을 보면 판타지 소설 15권을 쓰고 국어국문과에 입학한 경우, 인권변호사가 되려고 법 관련 동아리 활동을 한 경우 등 다양하다. 그러나 재능과 끼가 하루 아침에 형성되지는 않으므로 이런 프로필을 만드는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자신의 재능 등을 고려해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각 대학 지원 자격 꼼꼼히 따져야=각 대학 지원 자격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서울대 농어촌지역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전형은 정원외 전형이고 건국대 KU입학사정관전형1(리더십), 경희대 네오르네상스전형, 한국외대 리더십사회통합전형은 학생 임원 출신을, 경희대 국제화전형과 서강대 알바트로스국제화전형은 외국어 우수자를 요구한다.

▲자신을 알리는데 능숙해야=1단계 서류평가에서 자기소개서를 통해 자신을 최대한 눈에 띄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올해 경희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 주요 대학 대부분은 1단계에서 서류평가만 한다. 또 면접에 대비해 재능, 잠재력, 전공 분야에 대한 열정 등을 면접관에게 차분하면서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밖에 학생부나 수능 성적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날씨가 왜이래?

광주·전남 최고 22도

황사는 오후에 사라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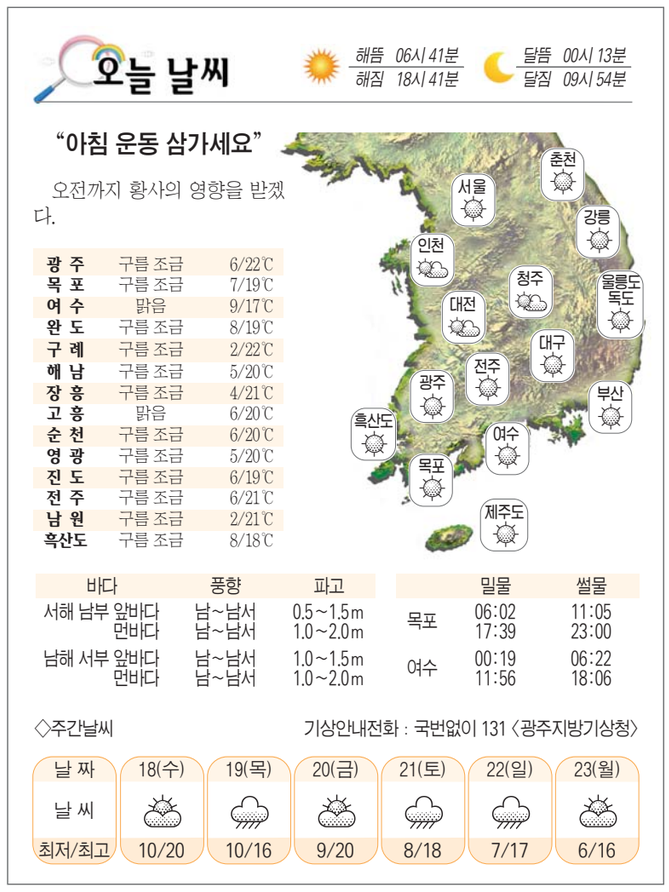
봄철 불청객 황사가 낮부터 물러간 뒤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7일 광주·전남은 아침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며, 황사는 오전까지 영향을 준 뒤 점차 사라지겠다"고 16일 예보했다.

기상청은 낮 최고기온이 평년보다 10도가량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전날과 비슷한 2~9도, 낮 최고기온은 전날보다 다소 높은 17~22도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남서풍을 타고 동중국해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크게 오를 것"이라며 "19일 한 차례 비가 내린 뒤 추위 없는 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 남구 쓰레기 처리업체 선정 '논란'

심사 참여 구의원, 선정 업체 감사 지내

광주시 남구의 쓰레기 처리업체 선정과정에서 최종 선정 업체에 감사로 재직했던 구의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광주시 남구에 따르면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 민간위탁업체 선정 심사위원회'는 지난 12일 A업체를 일반쓰레기 처리업체로, B업체를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로 각각 선정했다.

그러나 남구의회 P(48)의원이 일반쓰레기 처리업체로 선정된 A업체의 감사를 지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탈락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또한 남구는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도 의혹을 사고 있다.

당시 일반쓰레기 처리 업체 입찰에는 9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음식물쓰레기 업체는 6개 업체가 신청서를 냈다.

남구는 업체선정에 앞서 교수 2명, 시민단체·회계사·변호사·구의원·공무원 각 1명씩 총 7명을 심사위원에 위촉하기로 했다. 또 업체 로비를 막기 위해 3배수 인원을 참석하게 했다.

하지만 업체선정 심사 당일 3배수 인원이 참석하지 않자 심사위원회는 합의를 통해 심사위원 7명을 새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한명도 없자 변호사 대신 구의원을 1명 더 추가해 총 7명의 심사위원 중 구의원이 2명이나 위촉됐다.

특히 P의원은 위탁업체로 선정된 A업체에서 지난 2월 10일까지 11년 동안 감사로 재직했으며, 심사과정에서 이 업체에 최고 점수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P의원은 "아는 후배의 회사인 A업체에 11년간 감사로 재직한 사실은 맞지만, 심사위원 선정과정과 심사에 대해서는 잘못된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청은 앞으로 2개월간 실사 및 관련서류 검토 절차 등을 통해 이번 업체 선정과정의 문제점을 판단한 뒤, 재선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요양보호사 우수 기관

복지부, 광주대 선정

광주대는 16일 산하 요양보호사 교육원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요양보호사 우수 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전국 305개 주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적절성, 교육 성과 관리, 교육 환경 등 30여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우수 교육기관을 뽑았다.

지난해 문을 연 광주대 요양보호사 교육원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 전문가와 강사들이 요양원이나 노인복지센터 등 20여개 연계 기관에서 현장 중심의 교육을 펼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영광 6·25 전사자 유해발굴

제31보병사단은 16일 영광군 묘량면 삼학리 학동마을에서 모종화 31사단장, 정기호 영광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6·25 전사자 유해발굴 개토식'을 갖고 본격적인 발굴작업에 들어갔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여수 앞바다 침몰선 질산 1년 넘게 방치

해양오염 가능성

질산과 연료유를 실은 운반선 '이스턴 브라이트호'가 여수 앞바다에서 침몰한 지 1년 2개월이 지났지만 선체 인양 및 질산 수거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질산 유출로 인한 해양오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사고 선박 선사 측인 N개발과 보험업체인 일본의 N사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침몰 장소인 여수시 삼산면 백도 북동쪽 13㎞ 해상(수심 67m지점)에서 선체 인양 및 질산 수거작업을 벌였으나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작업을 중단했다.

현재 사고 선박엔 질산 2천129t 등이 직육면체 모양의 스테인리스 탱크로리 4곳에 실려 있다. 인양작업 당시 N개발 측 등은 탱크로리에 구멍을 뚫은 뒤 펌프장치를 이용, 화학약품을 바지선으로 빼내려고 했었다.

하지만, 파도가 높고 바닷속 시계가 20~50㎝에 불과해 작업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N개발 측은 내달 중순께 작업을 재계할 계획이다. 질산 수거작업 등이 장기화되면서 해양오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탱크로리가 스테인리스로 제작됐지만 장기간 방치될 경우 부식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남해수산연구소 등은 인양작업 후 세 차례에 걸쳐 수온·PH(용액의 수소 이온 농도지수)·DO(용존 산소량) 등을 조사한 결과, 사고해역에서 질산이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종행기자 golee@

함평, 친환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자격 미달 법인 선정 '말썽'

함평군이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인 '친환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자격에 미달한 법인을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농민들은 지원자격을 법인만으로 제한해 실제 축산농들이 배제된 데다 축산업을 하지도 않는 법인이 선정되는 등 선정과정의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16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정부지원 2009년도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친환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대상 법인 12곳을 선정했다.

총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사업은 축사 시설 현대화와 신축 등 12개동을 비롯해 퇴비사 신축 9개동 등에 선정법인 1곳당 8천300여만원이 지원되며 지방재정 조기집행 계획에 따라 올 상반기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A법인의 경우 '농림사업지침'에 규정된 '1년 이상의 법인'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